

또래상담자의 또래상담 교육과 활동 경험에 대한 연구 -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

주 지 선[†]

조 한 익

한양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또래상담자의 또래상담 교육과 활동 경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또래상담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파악함으로써 또래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2시간의 또래상담 교육을 이수한 후, 6개월 이상 또래 친구들에게 또래상담 활동을 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중학교 또래상담자 1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내용을 전사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또래상담 교육 경험으로는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 인식, 친구관계 증진, 상담능력 향상, 교육에 대한 어려움 등 4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둘째, 또래상담 활동 경험으로는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 또래상담자의 변화, 또래 친구 및 학교의 변화, 활동에 대한 어려움 등 4개 범주로 나뉘었다. 셋째, 또래상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에는 또래상담자의 노력, 학교의 지원, 유관 기관의 지원 등 3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또래상담자, 또래상담 교육, 또래상담 활동, 포커스 그룹 인터뷰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주지선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 (133-791)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Tel: 02-2220-1896 / E-mail: jjs4136110@hanmail.net

서 론

청소년기의 친구관계는 아동기에 단순한 놀이 친구였던 것과는 달리 서로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고, 성인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대인관계를 준비하기 위한 타인과의 훈련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즉 또래관계는 청소년들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립하여 이후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rikson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 중 하나는 자신을 탐색하여 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것이며, 보다 동등하고 상호적인 또래관계에 기반을 두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금명자 외, 2004). 또한 Aboud와 Mendelson(1999)은 친구의 기능은 교제의 즐거움, 도움, 친밀감, 신뢰, 인정, 정서적 안정 등으로, 친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정서적 지원 및 도구적 지원을 뜻하며,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Aboud & Mendelson, 199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4, 재인용). 여성가족부(2012)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하는 상대 1순위는 친구(58.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부모나 교사, 상담자에게 말하기 보다는 또래 친구들을 통해 도움 받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친구관계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이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친구관계를 활용하여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그 중 하나가 또래상담으로,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또래상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자치활동으로 전국 5,217개교 학교에서 또래상담이 운영되면서(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a) 또래상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래상담(Peer Counseling)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Veriend가 학업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들과 또래들과의 상담 결과를 발표하면서이다(이상희, 노성덕, 이지은, 2000). Gray와 Tindall(1978)은 또래상담을 ‘다른 사람에게 조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비전문가들이 취하는 다양한 대인적인 조력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May와 Rademacher(1980)는 학교장면에서의 또래상담을 ‘특별히 훈련받은 또래학생이 다른 또래학생의 학업, 인성, 행동 등을 조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형득과 김정희(1983)는 또래상담을 ‘특별히 훈련받은 재학생이 지도자가 되어 몇몇 정상적인 동료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성장과 발달 및 인간관계 발달의 능력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구분용, 구혜영, 이명우(1994)는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생활경험 및 가치관 등을 지닌 청소년들 중에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다른 또래들이 발달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에 조력하여 이들이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생활의 제반영역에서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하면, 또래상담이란 청소년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또래 친구들의 학교생활을 포함하여 생활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심리·행동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력하면서 서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래상담 교육은 1994년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되어 2000년에 개정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프로그

램은 12시간 과정으로 ‘좋은 친구되기(Friendship)’, ‘대화하는 친구되기(Counselorship)’, ‘도움주는 친구되기(Leadership)’라는 주제의 집단토의와 역할연습,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좋은 친구되기에서는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친구의 의미, 친구관계 살펴보기, 친구관계 걸림돌,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기, 우정곡선 그리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화하는 친구되기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또래상담 대화의 자세,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기, 대화 잘 이끌어나가기(어기역차 전략), 잠하들셋 기법 이해 및 연습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도움 주는 친구되기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 돕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도움 주는 대화 배우기(원무지계 전략), 대화 종합 연습, 역할극 꾸미기, 도움 되는 활동 찾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상희 외, 2000). 이 교육은 동아리, CA,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통해 주 1~2회로 운영되거나 캠프를 통해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또래상담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또래 친구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을 돕는 정서적 지지자, 조력자,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따뜻하고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학교 공감배려문화 촉진자, 지역사회 공감배려문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있다(양미진 외, 2013). 즉 또래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며,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를 학급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행동으로 도와주고, 친구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준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b). 예를 들면, 고민 들어주기, 상담실 연계하기, 먼저 인사하기, 조퇴·결석한 친구에게 문자하기, 전학생 학교생활 안내하기, 이동 수업 할 때 함께 가기, 점심식사 함께 먹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친구들 간에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촉진시키며, 지역 내 서로 소통하고 함께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b). 예를 들면, 교내 또래 칭찬함 및 고민함 설치·운영, 또래상담 홍보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축제 시 또래상담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 학교폭력 예방 UCC 제작 및 역할극 공연, 사과 데이 행사 운영, 지역 내 상담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1388 홍보, 지역 내 또래상담자 모임 참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후 지속적으로 또래상담자의 또래상담 교육과 활동의 성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2013년 또래상담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후 전국 단위의 성과 연구도 진행이 되었다. 먼저, 양적 연구를 통해, 또래상담으로 인한 또래상담자의 변화 요인과 이로 인한 또래 친구와 학급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래상담으로 인한 또래상담자의 변화 요인들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능력(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a; 박영희, 2013; 이경리, 2013; 이순희, 2013; 송영희, 2013; Gray & Tindall, 1978; Browman & Myrick, 1987; Rapp, Dowrkin & Moss, 1987), 대인관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a; 허린, 2014; 박기령, 2014; 박영희, 2013; 이경리, 2013; Thompson, 1984), 자아존중감(허린, 2014; 박기령, 2014; 오안란, 2014), 사회성(유은선, 2014; 김가영, 2013), 리더십(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a; 이종선, 2009), 공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a; 이순희, 2013), 학교폭력 태도(유은선, 2014), 학교 관련 태도(오안란, 2014; Rapp, Dowrkin, & Moss, 1987) 등이 향상되었다. 또한 또래상담으로 인한 또래 친구와 학급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학급 내 고립아의 사회적·정서적 고립 정도와 외로움, 불안 정도가 낮아졌으며(유인애, 공운정, 2007), 따돌림 피해학생들의 자아존중

감, 대인관계, 학교적응(정정임, 주은선, 2006)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으며, 학급에서는 학급응집력과 학교생활 만족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a; 최혜숙, 이현림, 2005), 또래 수용도(이나미, 2011)가 향상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또래상담 성과에 관한 요인으로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아개념, 사회성, 리더십, 학교 관련 태도, 학급응집력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또래상담의 성과와 관련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종속변인 중 의사소통 능력, 비행, 대인관계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으며(노성덕, 김계현, 2004),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자아개념, 대인관계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신금란, 2013). 이를 통해 또래상담 성과에 관한 요인 중 의사소통 능력의 효과크기가 가장 크며, 이는 또래상담 교육이 경청, 공감, 어기역차 전략, 원무지계 전략 등 친구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래상담 활동이 의사소통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또래상담의 교육과 활동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백향하(2004)는 또래상담자의 또래상담 활동 형태와 내용, 또래상담 활동을 통해 나타난 변화, 보람 있고 만족스러운 경험,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을 분석하였으며, 정미혜(2007)는 또래상담자의 멘토 활동을 통한 배척아동의 사회적 지위 등수와 사회적 지위 유형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백향하(2004)의 연구는 또래상담자의 활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또래상담자의 교육에 대한 경험이나 또래상담 활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또래 친구, 학급의 변화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웠고, 정미혜(2007)의 연구는 또래상담 활동을 통한 배척아동의 사회성 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또래상담 활동으로 인한 다양한 측면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상의 양적 및 질적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담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은 질적 연구를 통하여 또래상담자의 또래상담 교육과 활동 경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또래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또래상담자는 또래상담 교육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둘째, 또래상담자는 또래상담 활동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셋째, 또래상담을 위해 필요한 노력과 지원은 무엇인가 등이다.

방 법

포커스 그룹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Morgan(1998)이 제시한 질적 분석 방법으로, 해당 주제에 관해 잘 알고 있는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된 자료를 수집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즉 일반적인 그룹 인터뷰와 달리 목적, 규모, 집단 구성, 운영 과정에 있어서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집단을 구성하고 토론을 통해 어떤 결론을 찾아 가는 것인데, 허용적이며 자유로운 집단 환경에서 참여자들은 이미 선정되어 있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피드백을 교환하면서 토론을 진행해 나간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또래상담 교육과 활동, 또래상담의 효과 및 발전방안을 탐색하기에 가장 적절한 분석 방법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을 선택하였다.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로 또래상담 교육을 12시간 이수한 후, 6개월 이상 또래 친구들에게 또래상담 활동을 한 또래상담자 10명이 선정되었다. 이를 위해 참여자 모집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중학교 2개교씩을 선정하여 본 연구의 취지와 인터뷰 목적을 또래상담 지도교사에게 설명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또래상담자로 선정하였다. 선정 후 학교로 참여 요청 공문과 함께 인터뷰 질문지를 사전에 발송하여 참여자들이 인터뷰 내용을 숙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학생 2명, 여학생 8명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4명, 2학년 4명, 3학년 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4명(2개교), 인천 2명(1개교), 경기 4명(2개교)이었으며, 또래상담 교육 기간을 제외하고 또래상담 활동을 한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 4명, 1년 이상 2년 미만 4명, 2년 이상 2명이었다.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12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각 그룹에 5명씩 2그룹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그룹 당 90분씩 소요되었으며, 연구자 1인과 상담전공 석사과정생 1인이 함께 참여하여 한 명은 진행을 맡아 주제에 적합한 내용이 토의되도록 연구 목적에 맞는 질문을 제시하면서 토의를 이끌었고, 나머지 한 명은 동석하여 현장노트를 작성하고 녹음을 하였다.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에 인터뷰 목적과 내용, 인터뷰를 녹음하고 전사하는 것, 추후 연구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았다. 원활한 토론 진행이 되도록 도입 질문을 자기소개와 또래상담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묻는 것으로 시작하여 ‘또래상담 교육’과 ‘또래상담 활동’에 관한 주요 질문, ‘또래상담의 효과 및 발전방안’에 관한 마무리 질문 순으로 질문하였다. 인터뷰는 질문지의 내용을 충실히 다루되 필요에 따라 추

표 1. 또래상담자의 또래상담 교육과 활동에 관한 반구조화된 질문

구분	구분	질문 내용
도입 질문	인적사항	· 자기소개(학교, 학년, 또래상담 교육 및 활동 기간, 참여 동기)
	또래상담 교육	· 또래상담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또래상담 교육 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 또래상담 교육 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주요 질문	또래상담 활동	· 또래상담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 또래상담 활동은 어떤 것을 하였나요? · 또래상담 활동 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 또래상담 활동 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 또래상담 활동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 또래상담을 통해 여러분과 친구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또래상담이 잘 운영되기 위해 학교나 유관 기관에서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요?
마무리 질문	또래상담의 효과 및 발전방안	

가 질문을 실시하는 반구조화된 형태로 진행하였다. 하나의 주제에 대한 논의가 끝나면 진행자는 논의되었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두 요약하고, 참여자들에게 요약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지 문항의 선정은 연구자 1인과 청소년상담 기관에서 또래상담 사업을 담당하는 책임자와 실무자 2인이 함께 질문 아이디어 수집, 질문 초안 작성, 질문 초안 검토, 인터뷰 질문 작성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협의하여 개발하였다(김성재 외, 2000).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표 1과 같다.

자료 분석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분석을 위하여 연구자 1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석사 1인, 또래상담지도자인 상담전공 석사 1인이 축어록을 함께 검토하면서 가장 작은 의미 단위 중심개념으로 부호화하였다. 둘째, 분석자들이 함께 합의한 방식으로 개별 분석 과정을 가졌다. 축어록, 현장노트, 구두요약 등이 활용되었으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에 주의를 기울이며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분석자들이 모여 개별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논의하며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 자료들을 범주로 유형화하였다. 이 단계에서 유사한 범주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각 범주들이 상호배타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범주들을 생성하여 포함시킬지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넷째, 선정된 주제들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여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대화내용을 하위범주 별로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질적 분석 전문가 1인(상담심리학 박사, 상담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수정 보완

하였다.

결 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또래상담자의 또래상담 교육과 활동 경험을 분석한 결과, 3개의 주제, 11개 범주, 26개 하위범주로 구분되었으며, 각 주제는 ‘또래상담 교육 경험’, ‘또래상담 활동 경험’, ‘또래상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또래상담 교육 경험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또래상담자들은 학기 초에 또래상담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각 학교의 또래상담지도교사로부터 12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교육 내용은 먼저 다가가서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친구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대화하며, 자기리더십과 공동체 리더십을 발휘하여 친구를 돕는 방법에 대한 11회기의 구조화된 또래상담 교육 프로그램이 활용되었으며, 주 1회 또는 주 2회로 진행되었다. 또래상담자들은 자신과 다른 또래상담자의 다양한 참여 방법과 과정을 통해 참여 태도와 동기를 점검하였으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친구관계를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친구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친구관계가 증진되었다. 상담에 대해 쉽고 편하게 받아들이면서 상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고, 실제 또래 친구와의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상담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참여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교육시간에 대한 문제와 실제 상담사례의 부족을 보고하였다.

표 2. 또래상담자의 또래상담 교육과 활동에 관한 분석 결과

주제	범주	하위범주
또래상담 교육 경험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 인식	다양한 참여 과정
		참여 태도와 동기 점검
	친구관계 증진	친구에 대한 이해 증가
		친구관계의 개선
	상담능력 향상	상담에 대한 인식 변화
교육에 대한 어려움	상담기법 습득	
또래상담 활동 경험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	교육 시간의 문제
		실제 상담사례 부족
		일대일 상담
	또래상담자의 변화	친구의 학교 및 일상생활 조력
		교내 다양한 행사 주관
	또래 친구 및 학교의 변화	또래상담 발전을 위한 토의
		개인 내적인 성장
	활동에 대한 어려움	또래상담자로서의 발전
또래 친구들의 변화		
학교 분위기의 변화		
또래상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	또래상담자의 노력	또래상담자로서 역할의 한계
		상담 기술의 부족
	학교의 지원	상담에 대한 부담감
		또래상담자로서의 자기 관리
		또래상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유관 기관의 지원	학교장의 관심과 격려	
	행정적 · 재정적 지원	
		실제적 · 전문적인 개입
		정기적인 지역 또래상담자 모임
		캠프 참여 기회 확대

이들의 또래상담 교육 경험을 분석한 결과,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 인식, 친구관계 증진, 상담능력 향상, 교육 참여의 어려움 등 4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 인식

또래상담자들은 또래상담 교육에서 본인의 자원, 담임선생님의 추천, 면접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가 많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지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치거나 선생님 혹은 선배들의 면접 심사의 과정을 통해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때 또래상담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또래상담 활동에 활발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인지, 남을 돕고자 하는 동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등의 참여 태도와 동기를 점검해 봄으로써 자발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단위로 진술된 하위범주들은 ‘다양한 참여 과정’, ‘참여 태도와 동기 점검’ 등 2가지로 분류되었다.

다양한 참여 과정

본인의 자원, 담임선생님의 추천, 지원서나 선생님·선배의 면접 심사 등

- “하고 싶은 사람 손들라고 한 다음에요, 인원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하고 싶은 이유와 동기를 써서 내라고 해서 그 중에서 뽑아서 했어요.” (또래상담자 1)
- “저는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요.” (또래상담자 8)
- “저희는 2, 3학년이 1학년을 면접을 봐서 뽑았어요.” (또래상담자 2)

참여 태도와 동기 점검

지원서나 면접을 통해 자발성을 확인

- “자발적인 게 아니면 교육 받을 때 학원 간다고 빠지고, 일 있다고 빠지고... 소극적인

아이들보다는 활발한 아이들을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또래상담자 6)

- “추천을 받아도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면 괜히 남 도울 마음 없이 걸어로만 하게 되고... 그게 진짜 우러나오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또래상담자 1)
- “면접 볼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반영이 된 거 같아요.” (또래상담자 10)
- “면접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면접 때는 왜 지원을 하는지, 어떻게 활동할 건지 그런 거 물었어요.” (또래상담자 4)

친구관계 증진

또래상담자들은 또래상담 교육을 통해 자신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친구의 의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친구관계의 유형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신과 상대방의 친구관계 특징을 살펴보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친구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친구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실제로 친구관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단위로 진술된 하위범주들은 ‘친구에 대한 이해 증가’, ‘친구관계의 개선’ 등 2가지로 분류되었다.

친구에 대한 이해 증가

자신이나 상대방이 생각하는 친구의 의미, 친구관계 유형, 특징을 탐색

-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배웠어요.” (또래상담자 5)
- “상담하러 와서도 고민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래상담자 4)

친구관계의 개선

친구관계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실제로 적용

-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방법을 이야기 나누면서 친구랑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또래상담자 4)
- “친구를 더 편안하게 해 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더 수월해 진 거 같아요.” (또래상담자 3)
- “친구가 이전보다 나에게 더 많이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또래상담자 9)

상담능력 향상

또래상담자들은 또래상담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경청, 공감 등을 배우면서, 직접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 친구의 문제해결력을 믿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됨을 알게 되어, 상담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였다. 또한 경청의 태도, 어기역차 전략(공감하는 방법), 잡하돌셋 기법(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I-message(대화하는 방법), 원무지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통해 다양한 상담기법을 습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단위로 진술된 하위범주들은 ‘상담에 대한 인식 변화’, ‘상담기법 습득’ 등 2가지로 분류되었다.

상담에 대한 인식 변화

직접적인 해결방안 제시보다는 경청, 공감, 격려, 지지가 도움이 됨

- “상담이라고 하면 제가 뭔가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교

육하고 나서 꼭 해결해주는 것보다는 들어주기만 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래상담자 6)

- “평소에 이런 거 배우기 전에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위주로 했었는데 교육을 받고 좀 아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친구에게 내 생각을 주입시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래상담자 7)
- “친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래상담자 4)

상담기법 습득

경청, 공감, 감정 조절, 대화 방법, 문제해결 방법 등의 이해와 실습

- “애들하고 상담할 때 어떻게 물어봐 줘야 할지,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에 대해 알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어요.” (또래상담자 1)
- “그 친구가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또래상담자 7)
- “상담을 몰랐을 때는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었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는 I-message를 사용해서 차근차근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어요.” (또래상담자 9)
- “상담해 주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상담할 때 좀 더 쉬워졌어요.” (또래상담자 2)
- “친구한테 힘이 되어주는 말을 알게 되었어요.” (또래상담자 10)

교육에 대한 어려움

또래상담자들은 또래상담 교육에 있어서 몇 가지 어려운 점을 보고했는데, 현재 12시간의 교육 시간으로는 상담에 관해 배우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학교 일과시간인 동아리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학원, 교내 행사 등 다른 일정과 겹쳐서 가끔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반면 구조화된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고 재미있다는 의견에 다수가 동의하였고, 웹 교재나 동영상 등 시각 자료가 유용하다고 하였으며, 내용을 보완한다면 각 사례에 대한 적용 방법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의미단위로 진술된 하위범주들은 ‘교육 시간의 문제’, ‘실제 상담사례 부족’ 등 2가지로 분류되었다.

교육 시간의 문제

교육 시간의 부족, 학교 일과시간으로 미운영 시 일정 중복 문제 발생

- “상담을 잘 해 주려면 교육 시간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또래상담자 1)
- “동아리가 아니라서 아침 자습시간이나 방과 후에 하는데, 방과 후에 하면 학원 때문에 빠지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또래상담자 8)

실제 상담사례 부족

현재의 교육 내용에 만족하나, 실제 상담사례 부족

- “교육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재미있게 잘 되었던 거 같아요.” (또래상담자 2)
- “웹 교재랑 동영상을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거 같아요.” (또래상담자 3)

-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교육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래상담자 6)

또래상담 활동 경험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또래상담자들은 또래상담 교육 이수 후에 6개월 이상 또래상담 활동을 하였다. 또래 친구들의 고민에 대한 상담을 비롯하여 친구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을 함께 하며, 교내 여러 가지 행사들을 주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또래상담 활동을 통해 또래상담자의 개인 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또래상담자로서 발전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들에게 상담을 받은 또래 친구들의 변화가 일어났고, 학교의 분위기도 이전과 달라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또래상담 활동을 통해 또래상담자로서 역할의 한계와 또래상담의 기술 부족, 상담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의 또래상담 활동 경험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 또래상담자의 변화, 또래 친구 및 학교의 변화, 활동에 대한 어려움 등 4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

또래상담자들은 또래 친구들의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면대면 또는 문자로 상담을 해 줄 뿐 아니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에서도 함께 놀러가거나 쇼핑하러 가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과 데이 행사,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프리 허그, UCC 제작, 축제 시연극 공연 등 다양한 교내 행사를 주관하고 있었

다. 사례 토의 및 지역 내 또래상담자 모임을 통해 학교간 또래상담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또래상담의 발전을 위한 토의를 한다고 하였다. 의미 단위로 진술된 하위범주들은 ‘일대일 상담’, ‘친구의 학교 및 일상생활 조력’, ‘교내 다양한 행사 주관’, ‘또래상담 발전을 위한 토의’ 등 4가지로 분류되었다.

일대일 상담

또래 친구들의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면대면 또는 문자 상담

- “항상 표정이 어두운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먼저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상담을 해 주겠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또래상담자 7)
- “같은 반 친구랑 4번 정도 상담을 했는데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친구의 말을 들어 주고, 어떤 마음인지 알아주는 것으로 도움이 되었던 거 같아요.” (또래상담자 5)
- “중1 때 말을 버벅거리고 친구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먼저 상담을 해 보자고 했어요. 그 앤 아파트 위에서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했어요. 3번 정도 했는데 많이 편해지고,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또래상담자 1)
- “저는 또래상담자이기도 하지만 내담자로 상담을 받은 적도 있어요. 친구관계에서 많이 힘들어서...” (또래상담자 9)
- “어떤 친구는 선생님한테 말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저랑 문자로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또래상담자 4)

친구의 학교 및 일상생활 조력

학교 부적응 및 전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돕기,

함께 놀기 등

-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고,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 눈치를 많이 보고 힘들어 해서 따로 만나서 많이 놀아요.” (또래상담자 8)
- “새로 전학 온 친구들은 많이 어색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래상담자 3)
- “혼자 옷 같은 거 사러 갈 때 편하게 연락 하라고 해서 같이 가주고 했어요.” (또래상담자 1)

교내 다양한 행사 주관

사과 데이 행사, 캠페인, 프리 허그, UCC 제작, 축제 시 연극 공연 등

-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나 사과 하고 싶은 말을 애들이 편지지에 써서 내면, 저희들이 포장한 사과와 함께 배달해 주고 했었어요.” (또래상담자 1)
- “매일 친구들이 등교하는 곳에서 프리 허그를 하고 있어요.” (또래상담자 8)
-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으로 왕따 없애기 UCC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또래상담자 10)
- “축제 때 왕따에 관한 주제로 연극을 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공감하고 그랬어요.” (또래상담자 6)
- “피켓에 ‘고민을 들어줍니다’라고 적어서 들고, 아이들이 고민을 적으면 거기에 리플을 적어서 각자 반으로 배송을 해 주는 것도 했고요.” (또래상담자 7)

또래상담 발전을 위한 토의

사례 토의, 지역 내 또래상담자 모임을 통한

또래상담 활동 공유

-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학년별로 선생님과 상담 수첩에 적은 걸로 사례 토의를 하고 있어요.” (또래상담자 3)
-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다 모여서 함께 강의를 듣거나, 각자 하는 활동을 소개하고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또래상담자 10)
- “OO학교 또래상담 회장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이야기 해 주고 보완할 점이나 어떻게 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해 줬어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많은 것들을 도와주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다보니 더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래상담자 7)

또래상담자의 변화

또래상담자들은 또래상담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등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고, 친구들의 문제를 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내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을 하면서 또래 친구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었고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친구들을 대하게 되었고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유지를 함으로써 대인관계가 향상되었으며, 슈퍼비전을 통해 상담능력이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단위로 진술된 하위범주들은 ‘개인 내적인 성장’, ‘또래상담자로서의 발전’ 등 2가지로 분류되었다.

개인 내적인 성장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향상, 자기 치유 등

-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착해진 거 같아요. 책임감도 생긴 것 같아요.” (또래상담자 8)
- “할 때는 어렵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보람도 느끼고 뿌듯해요.” (또래상담자 2)
- “전교생들이 보는 방송으로 교장선생님이 임명장을 주고 배지를 달아줬는데 어깨가 으쓱해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또래상담자 5)
- “상담을 해 주면서 저도 치유가 된다는 것을 느껴요. 저도 친구랑 비슷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상담을 하면서 저도 같이 마음이 활가분해지고, 고민이 해결된 적이 있어요.” (또래상담자 1)

또래상담자로서의 발전

공감,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향상, 슈퍼비전을 통한 상담능력 향상

- “저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어떤 말을 들으면 생각을 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말해 주는데, ‘내가 학교 다니기 싫다면 어떤 마음일까’하고 생각을 해요.” (또래상담자 6)
- “제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상담 받으러 오는 아이들의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또래상담자 9)
- “선생님들보다는 아무래도 같은 나이 대니까 더 잘 공감해 준다고 해요.” (또래상담자 4)
- “저는 어떤 친구를 만날 때 선입견을 가지고 만나지 않는 것을 배웠어요.” (또래상담자 3)

- “친구들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더 친해진 거 같아요.” (또래상담자 4)
- “다른 애들보다는 또래상담자들이 입이 무거우니까 비밀 유지가 잘 되요.” (또래상담자 3)
- “개인적으로 상담한 것에 대한 어려운 점을 선생님께 가서 여쭙어 보고 도움을 받기도 해요.” (또래상담자 9)

또래 친구 및 학교의 변화

또래상담 활동은 또래상담자로부터 상담을 받은 또래 친구들과 학교의 전체 분위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즉 또래 친구들의 변화에서는 편안함, 만족감, 행복감, 대인관계가 향상되었으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친구를 조력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전체적으로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감소되면서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의미단위로 진술된 하위범주들은 ‘또래 친구들의 변화’, ‘학교 분위기의 변화’ 등 2가지로 분류되었다.

또래 친구들의 변화

편안함, 만족감, 행복감, 대인관계 향상, 문제 해결, 타인 조력 등

- “제가 ‘넌 멋있어, 팬찮은 애야’라고 말해줬을 때 기분이 좋았고, 저희가 있어서 교실에서 마음이 편해졌대요.” (또래상담자 4)
- “고민에 대한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반응은 다 비슷한데, 또래상담자들은 자기의 시각에서 잘 들어주니까 상담을 받는 아이들도 만족하는 거 같아요.” (또래상담자 8)
- “작은 관심에도 친구들은 ‘자기가 도움을 받

- 고 있구나’라고 크게 느끼고, 그래서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그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알려준 거 같아요.” (또래상담자 2)
-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서 가벼워지고, 든든한 지원자가 생긴 거 같대요..” (또래상담자 10)
- “상담 받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도 많이 도와주고 점심시간에 상담실에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많이 밝아진 거 같아요.” (또래상담자 5)
- “쉽게 다가오는 거 같고, ‘우리도 상담할 수 있어’ 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래상담자 7)

학교 분위기의 변화

학교폭력 문제 감소,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조성 등

- “소외당하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든 거 같아요.” (또래상담자 9)
- “학교폭력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해요.” (또래상담자 1)
- “사과 데이 날에 전교생이 사과하는 편지쓰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쓴 편지를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사과와 함께 배달한 했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또래상담자 4)

활동에 대한 어려움

또래상담자들의 또래상담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고했는데, 지나친 감정 이입으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감, 개인적인 친구관계에서의 갈등, 또래 친구의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또래상담자로서 역할에 대한 한계를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가 어려울

때,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모를 때, 어려운 문제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때 상담 기술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친구들이 상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해결책 제시해 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때 상담에 대한 부담감으로 힘들어 하였다. 의미단위로 진술된 하위범주들은 ‘또래상담자로서 역할의 한계’, ‘상담 기술의 부족’, ‘상담에 대한 부담감’ 등 3가지로 분류되었다.

또래상담자로서 역할의 한계

심리적인 부담감, 친구관계에서의 갈등, 친구의 지나친 의존 등

- “상담할 때 지나치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힘들었어요.” (또래상담자 2)
- “친구들이 문자로 ‘개 불편하니까 아는 척을 하지 말자’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중간에서 곤란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상담자이지만 그전에 학생으로서 제 친구들이 있는데...” (또래상담자 4)
- “그 친구가 저에게 많이 의지하고 싶어 했는데 저도 제 시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계속 새벽에 전화를 한다든가, 문자를 한다든가 하고... 어디에 갔을 때 답장이 없으면 ‘너 왜 답장 안 해?’,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해요. ‘나도 내 시간이 있으니까 답장 주기 어려워.’라고 하면 상처를 받을까봐... 거절하기 어려운 거예요.” (또래상담자 3)

상담 기술의 부족

다가가는 것이 어렵거나 어떻게 도울지 모를 때, 어려운 상담을 대했을 때 등

- “다가가기가 힘들었어요. 평소에 혼자 지내고 말도 잘 안하는 애들은 눈을 무섭게 하고 있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안할 때도 있어요.” (또래상담자 4)
-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편해서 그러는지, 친구들이 불편해서 그러는 건지 도와주어야 하는 건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또래상담자 1)
- “왕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나 심각하게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서 어려웠어요.” (또래상담자 9)

상담에 대한 부담감

친구들의 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 해결책 제시에 대한 압박감 등

- “축제 때 친구들과 다 같이 편하게 상담을 하고 싶어서 타로카드를 활용했는데, 나중에 제가 신기가 있어서 맞추는 것처럼 타로 카드 점을 봐주기만을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상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래상담자 10)
-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상담에서 하는 일이 없는 거 같고, 그 때마다 적절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요.” (또래상담자 8)

또래상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

본 연구에 참여한 또래상담자들은 또래상담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또래상담자로서의 자기관리와 적극적인 홍보 등 또래상담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장의 관심과

격려, 행정적·재정적 지원, 실제적·전문적인 개입 등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정기적인 지역 또래상담자 모임이나 캠프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등 정부나 청소년상담기관과 같은 유관 기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이 생각하는 또래상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분석한 결과, 또래상담자의 노력, 학교의 지원, 유관 기관의 지원 등 3개의 범주로 나뉘었다.

또래상담자의 노력

또래상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으로, 먼저 또래상담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래상담자로서 타인에게 모범이 되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며, 열정이 있어야 하고 상담에 대한 비밀보장도 철저히 지켜야한다고 하였으며, 또래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또래상담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의미단위로 진술된 하위범주들은 ‘또래상담자로서의 자기 관리’, ‘또래상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2가지로 분류되었다.

또래상담자로서의 자기 관리

타인에게 모범, 열정, 이타심, 상담에 대한 비밀보장 등

- “또래상담자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행동을 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조금만 잘 못해도 ‘재는 또래상담자라고 하면서...’라는 말이 들리니까요.” (또래상담자 8)
- “또래상담자의 열정이요.” (또래상담자 1)
-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비밀 보장도 확실하게...” (또래상담자 3)

또래상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친구들과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홍보

- “학교에서 또래상담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저희 부서를 많이 알리고 힘들 때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거 같아요.” (또래상담자 2)
- “프리 허그를 꾸준히 하니깐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홍보 효과도 있고요.” (또래상담자 8)
- “저희는 학교가 끝나고 교문 밖에 부스를 설치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선생님들 이랑 같이 활동을 했어요. 교문 밖에 나가는데 애들한테 홍보 밴드를 나눠주거나, ‘또래상담이랑 힘들 때 전화해’ 라고 쓰인 조끼를 입고 활동을 했어요.” (또래상담자 6)

학교의 지원

또래상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으로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학교장의 관심과 격려가 또래상담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봉사활동 시간으로의 인정, 각 반별 또래상담자의 고른 배치, 안정적인 교육 시간과 상담 장소 확보 등의 행정적 지원과 간식이나 체험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상담 사례 분석과 사례별로 필요한 대화 기술, 문제 해결 방법 등 실제적으로 활용이 용이한 교육 내용과 상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의미단위로 진술된 하위범주들은 ‘학교장의 관심과 격려’, ‘행정적·재정적 지원’, ‘실제적·전문적인 개입’ 등 3가지로 분류되었다.

학교장의 관심과 격려

학교장 및 선생님들의 관심과 격려, 심리적

지원

- “교장 선생님이 이런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희들한테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왕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좋은 애기도 많이 해 주세요.” (또래상담자 2)
- “교장실에 들어갈 일도 없는데 교장실에서 상도 주시고, 자랑스럽다고 이야기 해 주셨어요.” (또래상담자 5)

행정적·재정적 지원

봉사시간 인정, 안정적인 교육 시간과 상담 장소 확보, 간식 지원 등

- “상담 활동에 대해서 봉사 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래상담자 1)
- “학년이 바뀔 때 각 반에 또래상담자가 두 세 명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래상담자 2)
- “학교에서는 상담할 친구와 이야기할 장소가 없어요. 보통 주차장이나 운동장 같은 데에서 해요. 벤치에서 하기도 하고.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래상담자 7)
- “동아리가 아니다 보니까 아침 자율학습이나 점심시간은 시간에 쫓기고 그래서 방과 후에 하게 되는데, 또 스케줄이 있는 친구는 먼저 가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래상담자 5)
- “경제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침을 안 먹고 오는 애들이 많으니까 간식도 사 주시고, 뮤지컬도 보러 갔어요.” (또래상담자 10)

실제적·전문적인 개입

다양한 상담 사례 분석, 실제적 교육 내용, 상담 전문가의 개입

- “좀 더 다양한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래상담자 6)
- “친구한테 힘이 되어주는 말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 주는 말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또래상담자 3)
- “친구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타로카드 같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래상담자 7)
- “상담 전문 선생님이 오셔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래상담자 9)

유관 기관의 지원

또래상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으로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이나 정부와 같은 유관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래상담자들은 지역 내 다른 학교 또래상담자들과의 모임을 통해 또래상담 활동에 관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신감을 얻게 되므로, 향후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별 또는 전국 또래상담자 캠프에 참여하여 많은 또래상담자들이 함께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의미단위로 진술된 하위범주들은 ‘정기적인 지역 또래상담자 모임’, ‘캠프 참여 기회 확대’ 등 2가지로 분류되었다.

정기적인 지역 또래상담자 모임

다른 학교와 또래상담 활동에 관한 정보와 노하우 공유

- “다른 학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는지, 다른 학교랑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학기에 한 번씩 하면 좋겠어요.” (또래상담자 7)
- “정말 사소한 하나까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부끄러울 정도로 멋진 활동을 하시는데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또래상담자 1)

캠프 참여 기회 확대

지역별, 전국 단위 또래상담자 캠프 참여를 통한 소속감 및 친밀감 형성

- “OO 지역 전체 캠프를 갔었는데, 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다른 학교 또래상담자들과도 많이 친해졌어요.” (또래상담자 4)
- “전국 캠프에 참여를 했는데 전국에 이렇게 많은 또래상담자가 있나 싶어서 놀랐어요. 정말 좋았었는데 그때 지역별로 인원에 제한이 있어서 제 친구는 못 가서 정말 아쉬웠어요.” (또래상담자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담자의 또래상담 교육과 활동 경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또래상담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파악함으로써 또래상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또래상담 교육을 12시간 이수한 후, 6개월 이상 또래 친구들에게 또래상담 활동을 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중학교 또래상담자 1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또래상담 교육 경험으로는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 인식, 친구관계 증진, 상담능력 향상, 교육에 대한 어려움 등 4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우선,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 인식**에서는 본인의 자원, 담임선생님의 추천, 지원서 제출, 선생님이나 선배의 면접 심사 등의 ‘다양한 참여 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게 되고, 지원서나 면접을 통해 자발성을 확인하게 되고 ‘참여 태도와 동기를 점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 증진**에서는 자신이나 상대방이 생각하는 친구의 의미, 친구관계 유형, 특징을 탐색해 나가면서 ‘친구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였고, 친구관계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에 대해 배우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친구관계의 개선’이 나타났다. **상담능력 향상**에서는 친구의 고민에 대해 직접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경청, 공감, 격려, 지지가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담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났고, 경청, 공감, 감정 조절, 대화 방법, 문제해결 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실습함으로써 다양한 ‘상담 기법 습득’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어려움**에서는 상담을 충분히 배우기에 ‘교육 시간이 부족’하며 학교 일과시간인 동아리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 일정이 중복되어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교육 내용은 ‘실제 상담사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에서 2014년까지의 또래상담 성과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 자아개념, 대인관계 순으로 효과 크기가 크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신금란, 2013). 또한 또래상담자들은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상담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으며 추가 교육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을 느끼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래상담자의 역량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보수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3년에 개발된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 방법과 활동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또래 친구들의 학업, 진로, 친구관계, 가족문제 등 다양한 문제 유형별 상담 방법과 활동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문제 유형에 따른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토의하고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또래상담 활동 경험으로는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 또래상담자의 변화, 또래 친구 및 학교의 변화, 활동에 대한 어려움 등 4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에서는 면대면 상담 또는 문자 상담 등의 ‘일대일 상담’, 학교 부적응 및 전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돕기, 함께 놀기 등을 통한 ‘친구의 학교 및 일상생활 조력’, 사과 데이 행사,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프리허그, UCC 제작, 축제 시 연극 공연 등과 같은 ‘교내 다양한 행사 주관’, 사례 토의, 지역 내 또래상담자 모임 등을 통해 ‘또래상담 발전을 위한 토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상담자의 변화**에서는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향상, 자기 치유 등의 ‘개인 내적인 성장’이 나타났으며,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상담능력의 향상 등 ‘또래상담자로서의 발전’이 나타났다. **또래 친구 및 학교의 변화**에서는 편안함, 만족감, 행복감, 대인관계 향상, 문제 해결, 타인 조력 등의 ‘또래 친구들의 변화’가 나타났고, 학교폭력 문제가 감소하며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학교 분위기의 변화’도 나타났다. 한편 **활동에 대한 어려움**에서는 지나친 감정 이입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때, 개인적인 친구관계에서의 갈등이 있을 때, 또래 친구가 지나

치게 의존을 할 때 ‘또래상담자로서 역할의 한계’를 느꼈고,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울 때,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모를 때, 어려운 문제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들을 대했을 때 또래상담자는 ‘상담 기술의 부족’을 느꼈으며, 또래 친구들의 상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낄 때 ‘상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래상담자는 전문 상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할의 한계나 상담 기술의 부족,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상의 또래상담 활동 경험은 또래상담자의 상담 활동에 관한 질적 연구인 백향하(2004)의 연구에서와 같이 또래상담자들의 상담활동 형태로 보고한 직접적인 대화, 통신매체 활용, 게임 및 놀이, 음식 나누어 먹기 등과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가 전체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주며, 또래상담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변화 내용으로 보고한 일상생활에서의 내면적인 변화, 대인관계에서의 변화, 학교생활에서의 변화 등과 또래상담자의 변화가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준다. 또한 또래상담자들이 보람 있고 만족스러웠던 경험 내용으로 보고한 만족스러운 결과, 긍정적 피드백, 주위의 인정과 격려, 자기 성장의 기회 등과 또래 친구 및 학교의 변화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또래상담자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 내용으로 보고한 주위의 이해 부족, 자신의 미숙함과 준비 부족, 시간 활용의 어려움, 상담과정에서의 어려움, 만족스럽지 않은 상담결과 등과 활동에 대한 어려움은 전체적으로 일치한다. 특히 다양한 활동을 통해 또래상담자는 정서적 지지자, 조력자, 문제 해결자, 학교 및 지역사회 공감배려 문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양미진 외, 2013)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또래상담자의 활동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소진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2013년에 개발된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자의 역할 한계 인식, 시간 및 자기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또래상담자의 상담 윤리 문제, 스트레스 대처 및 관리, 의사결정 방법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근의 타 학교 또는 상급 학교 또래상담자와의 교류 기회를 가짐으로써 다양한 또래상담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또래 눈높이에서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또래상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으로는 또래상담자의 노력, 학교의 지원, 유관 기관의 지원 등 3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또래상담자의 노력**에서는 타인에게 모범이 되며, 열정이 있어야 하고, 상담에 대한 비밀보장을 준수하는 등 ‘또래상담자로서의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또래상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또래상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지원**에서는 ‘학교장의 관심과 격려’가 중요하며, 봉사시간 인정, 반별 또래상담자 배치, 안정적인 교육 시간과 상담 장소 확보, 간식이나 체험 활동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다양한 상담 사례 분석, 실제적 교육 내용, 상담 전문가의 개입 등의 ‘실제적·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과 정부와 같은 **유관 기관의 지원**에서는 다른 학교와 또래상담 활동에 관한 정보와 노하우 공유할 수 있는 ‘정기적인 지역 또래상담자 모임’이 필요하고, 지역별 또는 전국 단위 또래상담자 캠프를 통해 또래상담자들이 소속감 및 친밀감 형성을 위한 지역별, 전국 단위의 ‘캠프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상담에 대한 욕구가 차츰 더 많아지고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역량이 점점 더

요구됨에 따라, 또래상담자 스스로가, 교사와 학교장이, 그리고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 및 정부의 또래상담 담당자의 노력과 지원이 더 필요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또래상담자는 상담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상담 역량을 함양해야 하며, 교사와 학교장은 또래상담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과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실제적·전문적 개입을 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과 정부의 또래상담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춰 운영하며, 또래상담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또래상담을 활성화하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교장의 또래상담에 대한 관심과 인식 변화를 위해 학교장 연수 시 또래상담자의 교육과 활동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체 교사 대상 연수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또래상담지도교사로 일반 교사나 외부 기관의 상담자를 배정하기보다는 또래상담반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또래상담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이나 정부와 같은 유관 기관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고등학생이 함께 사용하고 청소년용 또래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급별 프로그램으로 개정하여 또래상담자의 수준을 반영하고, 2013년에 개발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과 같이 다양한 문제 유형별 심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또래상담자들의 소속감과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별 또래상담자 모임과 캠프가 전국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 지침 제공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또래상담

교육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활용되어 오고 또래상담자의 역할이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질적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양적 연구에 치중이 되어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담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들의 또래상담 교육과 활동 경험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또래상담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파악함으로써 또래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또래상담의 교육과 활동 경험을 통해 또래상담자는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교사와 학교장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또한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지원과 실제적·전문적으로 필요한 개입은 무엇인지,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과 정부의 또래상담 담당자는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출함으로써 향후 또래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초등·고등학생과는 인지, 정서, 행동적 발달 수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발견된 요인들이 초등학교 또래상담자나 고등학교 또래상담자에게서 발견될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학교급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여 또래상담 교육과 활동 경험, 그리고 또래상담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알아보았다. 또래상담은 또래상담자의 역할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만, 활동의 주된 수혜자가 또래 친구이고, 또래상담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지도자가 또래상담지도교사이

며, 또래상담이 학교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장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구 대상을 폭넓게 선정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또래상담 활동에 대해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호토론 과정을 통해 통찰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거나, 의견 합의에 이르는 주요한 내용들을 추출해 내는데 유용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또래상담자 개인의 교육 경험과 활동 경험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이끌어내고 유목화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연구자의 면담 능력과 자료의 분석 및 면담의 해석 능력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 성격이 강하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본용, 구혜영, 이명우 (1994).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금명자, 장미경, 양미진, 이문희 (2004). 청소년 또래상담.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가영 (2013).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 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 (2000). 포커스그룹 연구방법. 서울: 현문사.
- 노성덕, 김계현 (2004). 국내 또래상담 성과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2(2), 3-10.
- 박기령 (2014). 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박영희 (2013). 또래상담훈련프로그램이 중학생 또래상담자의 의사소통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백향하 (2004). 고등학생의 또래상담 활동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송영희 (2013). 중학생의 또래상담자훈련이 자기표현능력 및 의사소통기술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신금란 (2013). 국내 또래상담 성과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성과연구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양미진, 서 미, 주지선, 김혜영, 전환희, 성벼리 (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오안란 (2014). 초등학교 또래상담 훈련과 활동이 또래상담자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유은선 (2014). 또래상담이 초등학생의 사회적 기술과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유인애, 공운정 (2007). 초등학교 또래상담 운영이 고립아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0, 261-278.
- 이경리 (2013).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이나미 (2011). 학급임원을 대상으로 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또래수용도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이상희, 노성덕, 이지은 (2000). 단계별 또래상담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순희 (2013). 또래 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적 이해와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이종선 (2009).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효과. 교육혁신연구, 19, 79-92. 부산대학교 교육연구소.
- 이형득, 김정희 (1983). Peer Group Counseling의 효과에 관한 일 연구. 지도상담, 8, 41-63.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정미혜 (2007). 또래상담자의 멘토 활동이 초등학교 배척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 정정임, 주은선 (2006). 또래 상담 활동이 따돌림 경험 학생들의 심리적인 변화에 주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22, 1-16. 덕성여자대학 학생생활지도연구소.
- 최혜숙, 이현림 (2005).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이 또래상담자 및 소속 학급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6(2), 415-433.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4). 청소년 또래상담.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a). 2013년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 결과보고집.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b). 또래상담 운영 학교 지침서 및 교사 매뉴얼.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허 린 (2014). 또래상담훈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Browman, R. P., & Myrick, R. D. (1987). Effects of an elementary school peer facilitator program on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School Counselor*, 34(5), 360-378.

- Gray, H. D., & Tindall, J. A. (1978). *Peer counseling: An in-depth look at training peer helpers*. Muncie: Accelerated Development Inc.
- May, R. J., & Rademacher, B. G. (1980). Making the helping network for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19, 367.
- Morgan, D. I. (1998). *The focus group guidebook: Focus group kit 1*. SAGE Publication: CA.
- Rapp, H. M., Dowrkin, A. L., & Moss, J. L. (1987). Student to student helping program. *The Humanist Educator(Dec)*, 81-90.
- Thompson, C. L. (1984). Solving plays and children helping children. *Elementary School Guidance & Counseling*, 18(4), 297-303.
- 원고 접수일 : 2014. 10. 15.
수정원고 접수일 : 2014. 12. 11.
게재 결정일 : 2014. 12. 16.

**A Study on Peer Counseling Training and
Activity Experience of Peer Counselors:
With a Focus on the FGI of Peer Counselors**

Ju, Ji-Sun

Jo, Han-Ik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mote peer counseling system by analyzing peer counseling training and activity experience of peer counselors systematically and the support system from government and counseling organization. For this, 10 peer counselors who took peer counseling training for 12 hours and took peer counseling activity to their friends for more than 6 months, were interviewed as a focused group. They worked middle schools in Seoul, Incheon, and Kyoung-gi. Interviews were recorded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cipants, the contents were transferred to analysis. As a result, first, the peer counseling training were put into four categorie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voluntary participation', 'improving of relationship', 'improving of counselling skills', and 'difficulty of education'. Second, the peer counseling activity were put into four categories: 'participation in various activities', 'Changes in the peer counselors', 'Changes in the friends and the school', and 'difficulty of the activity'. Lastly, support and effort for promoting peer counseling were put into three categories: 'efforts of peer counselors', 'support of the school', and 'support of government and counseling organiz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conclusion and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peer counselor, peer counseling training, peer counseling activity, focus group interview